

제 목	안전교육으로 만드는 안전지대
<p>저는 오랜 기간 보육교사로 재직하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해 왔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을 때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충전되기도 했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p> <p>교육 중에 어린이집에서는 사고가 더욱 가깝게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강사의 말에 경각심을 느끼며 교육에 성실히 참여했는데 막상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이 방법을 시도할 일이 없기만을 바랐습니다.</p> <p>만 2세 반의 담임으로 있던 어느 날 낮잠 시간이 되어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아이에게 달려가 보니 무언가를 삼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옆 반 선생님을 불러 119에 신고해 주기를 부탁하고 아이의 등을 두드렸습니다.</p> <p>정말 놀라웠던 것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교육 내용을 동료 교사들과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회상하며 지속적으로 암기했는데 사고가 발생하자 이렇게 숙지하게 된 내용에 따라 반사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일시에 한마음으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순서에 따라 침착하고 동일하게 대응했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고 돌아온 교사는 만일에 대비하여 옆에서 즉시 응급처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p> <p>이런 상황에서 저는 등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아이에게 다음 방법을 시행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게 주먹을 쥐고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며 응급처치를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시도를 해도 목에 이물질이 걸려 숨도 못 쉬고 청색증까지 나타난 아이를 보며 무서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정심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자 동료 교사는 아이를 잡고 다시 한번 최대한 힘을 주어 하임리히법을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입에서 아이가 착용하고 있었던 머리핀이 나왔습니다. 머리핀이 목에서 나오자마자 아이는 기침을 하며 호흡을 정상적으로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무서웠던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눈물이 나왔습니다.</p> <p>이 에피소드는 보육교사로 재직한 지 15년 차에 생겼던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이런 위기 상황을 맞닥뜨린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조금은 안일한 마음으로 교육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p> <p>교육으로만 접했던 내용을 실제 상황으로 겪고 보니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 순간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체되었다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을까 하는 생각에 안전교육은 열 번, 백 번을 들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p>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체험수기 -

또한,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동일한 교육 내용을 이수 받는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서로가 다른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응급상황을 마주했다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지체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교육기관을 통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함께 외우고 연습했던 것이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저의 마음가짐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린이집 일과를 보낼 때면 기쁘고 즐겁게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마음 한 편에서는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건전한 긴장감을 갖고 하루를 보냅니다.

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교육에서 더 나아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찾아 이수하며 안전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고를 겪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저 무감각한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체험했듯이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때까지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안전교육에 소극적인 태도로 접근하기보다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누구든지 위기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라는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곳이라면 더욱 경계심을 갖고, 안전교육이야말로 안전지대를 공고히 하는 열쇠라 여기며 교육에 힘써 참여하여 매일매일을 안전한 보육현장으로 만들어가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